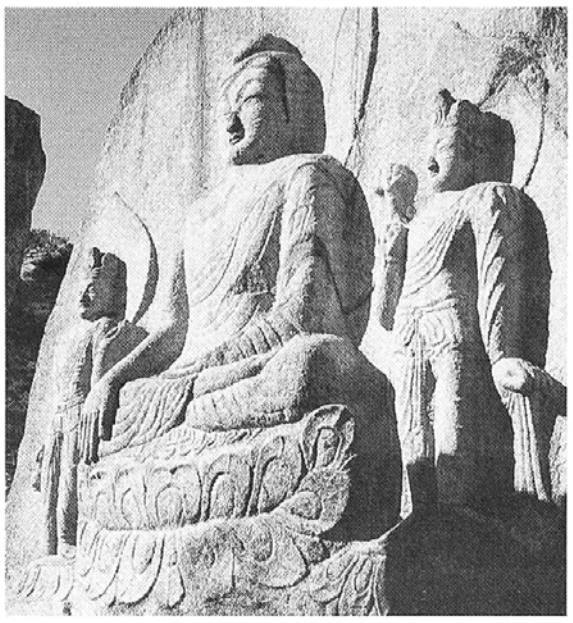


◇경주남산의 석불사진 1백50점이 소개되는 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사진은 남산 보리사의 석불과 칠불암의 석불, 냉골의 석불이다(좌로부터).

경주남산 부처님 '서울 나들이'

이근후 박사 석불사진전 '…구원의 미소여' 14~20일 세종문화회관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 서명·비디오 상영도

경주 남산의 부처님들이 서울로 겨울나들이를 온다.

경부고속철 경주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로 온 남산의 부처님들은 오는 14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근후박사(이화여대교수)가 「아 그 미소, 구원의 미소여」를 주제로 경주 남산 석불사진전을 마련한다.

이 전시는 이박사가 올해 회갑을 맞아 잔치와 논문봉정등의 행사를 마다하고 마련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석불문화연구회' 활동을 해 온 이박사는 이 전시를 위해 이미 5년전부터 적금을 부어 왔으며 자녀들도 적잖은 후원금을 냈다는 뒷얘기도 그의 '외도(外道)'이자 '중간회향'을 더욱 빛나게 하는 대목이다.

10여년간 남산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그곳의 부처님들과 대화를 해 온 이박사는 이번 전시에 1백50여장의 사진작품을 내놓는다.

"코를 잃어버린 부처님, 목이 잘린 부처님에서 감실에 홀로 앉아 세상을 굽어 보는 부처님까지 다양한 부처님들이 주는 인상은 현대인의 일그러진 삶을 고즈넉히 위로하는 듯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들 정신적 귀의처가 어디인가를 일깨우고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현대인의 정신적 귀의처가 어디인지는 전시장을 둘러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해마다 네팔의 산간벽지로 의료봉사를 떠나기도하는 이박사의 석불에 대한 탐구도 결국 현대인의 정신적 귀의처에 대한 해답찾기 행로였다.

"한갖진 산비탈에 천년의 미소로 앉아 계시는 부처님들을 대할 때마다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남산골의 부처님들은 문화재적 가치나 미술사적 가치 이전에 인간의 정신을 보듬는 자애로움으로 우리들에게 침묵의 감로법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뜨겁게 달아오른 경부고속철의 경주 통과 문제도 이박사의 전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고속철이 경주를 통과할 경우 그 자애로운 법문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시회를 통해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시장에서는 고속철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서명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남산의 석불문화에 대한 비디오 영상도 계속 상영된다. 또 경주통과를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를 준비된 종이에 적어 주는 관람객에게는

◇이근후씨

이박사가 이 전시회와 때맞춰 펴내는 수필집 〈돌부처〉(여시아문 펴냄)을 기증할 계획이다.

"전시회 일정을 잡고도 경주를 여러번 찾아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주에도 고속철의 통과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경주인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문화적 긍지가 적다는 것과 문화재로 인한 개발저하가 주는 현실적인 불편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년고도에 걸맞는 문화도시로의 개발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폭넓게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후원하는 이 전시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임연태 기자

문화재소식

석굴암등 '세계문화유산' 선포

해인사(주지 지관)와 불국사(주지 설조)는 문화재관리국과 함께 오는 7,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석굴암(국보 24호),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경판고(국보 32·52호), 종묘(사적 125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해 국민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두 사찰과 문화재관리국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유적주변에 내걸고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본부와 파리문화원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내년 초에 열 예정이다.

국보 미륵사서탑 붕괴위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탑(600~641년)인 전북 익산시 미륵사터 서탑(국보 11호)이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김삼룡(전 원광대 총장)교수는 지난달 24일 "미륵사 서탑을 지탱하고 있는 콘크리트가 심하게 부식되면서 탑석과 콘크리트가 분리돼 붕괴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또 "탑을 지탱해 주고 있는 콘크리트가 세월이 지나면서 부식, 탑 전체에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겨울에 눈이 내리고 탑석 틈이 얼었다 녹을 경우 붕괴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전·현직 문화재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미륵사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는 발굴현장에서 회의를 갖고 미륵사 서탑 보존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은 이후 3~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마쳤으나 '현상태로의 보존'과 '해체 복원'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최근 부분보수만 실시키로 했다.

분황사 추가발굴예산 신청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초기의 사찰인 분황사 5차년도 발굴조사에서 강당지와 회랑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2일 추가발굴을 위한 예산 7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했다.

올해 분황사지 발굴작업을 통해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기와 토기류 등 2백여점의 유물을 찾아냈던 문화재연구소측은 가장 중요한 유적인 강당지와 동서회랑을 찾기위해 2~3년간 추가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따른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몽고국보 내년 1월 서울 전시

서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몽고 국보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불상류 11점을 비롯, 조각류, 회화류, 서적류, 의상장신구류, 생활용품류, 무기류 등 몽고의 전통적인 문화재 2백26점이 전시되고 미술관앞에는 몽고의 전통가옥인 겔(GER)이 한 채 설치된다.

어린이 문화재사랑 그림으로 본다

중앙박물관 9일까지 전시

서울·경기지역 국민학생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어린이문화재실기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이 중앙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를 모델로 실기대회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권은주양(선곡국교 5)의 석가모니불과 사천왕을 부조화한 문화재를 그린 박연경양(명원국교 2)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어린이문화재 실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권은주양의 그림 '석가모니불'.

전시회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윤이상씨 추모음악회 서울·독일서 열려

육필악보·사진 전시도…교계 '불교음악 발표무대 마련해야"

지난 11월3일 독일에서 타계한 윤이상씨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독일과 한국에서 잇따라 열렸다.

주한 독일문화원은 지난 11월28일~12월2일까지 남산의 독일문화원에서 윤씨의 음악과 생애를 조명한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 기간중에는 윤이상씨의 육필악보와 관련자료, 사진등도 전시됐다.

또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는 지난 11월 26일 '그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티나'(83년작)등이 연주된 추모음악회가 열렸다.

이번의 두 추모공연을 계기로 교계에서는 윤이상씨가 남긴 불교를 주제로한 음악들도 불교계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소개하는 무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49재 21일 조계사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

故 윤이상씨의 49재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종단협이 후원하는 이번 49재에는 윤이상선생 가족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씨의 49재는 이날 독일 현지에서도 열린다.

'불교문예' 창간호 나와

현대불교문학회 동인지

현대불교문학회(회장 수완스님)가 문예지 성격의 동인지 〈불교문예〉를 펴냈다.

연간 1회씩 발간될 〈불교문예〉 창간호에는 현대불교문학회의 고문인 오현 성우 청화 정휴스님과 정공채씨의 시와 이두스님 고은씨 등의 초대시와 동인들의 시가 실렸다.

또 올해 제정된 현대불교문학상 신인상 수상작들도 함께 수록됐으며 창간특집 평론 최종호씨의 「조지훈론」도 소개됐다.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대구 원만사합창단(단장 보현스님) 제 1회 합창발표회가 오는 6일 오후6시 대구청소년수련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또 이날 발표회에서는 원만사 유치원생들과 주운숙씨가 특별출연해 '어른들은 몰라요' '심청가'를 연주하는 것은 물론 방청객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원만사합창단 6일 첫 발표회

'삼신불찬' 등 찬불가 공연…대구청소년수련관서

93년 창단, 50여명의 합창단으로 구성된 원만사합창단은 이번 발표회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삼신불찬' 등 찬불가를 비롯 '사랑이여' '신아리랑'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제곡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불음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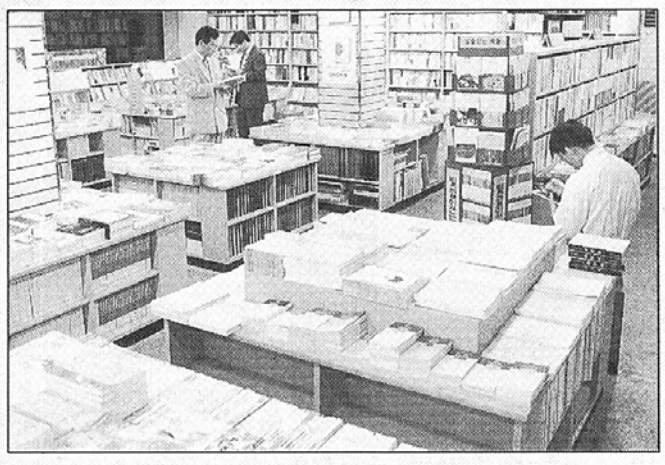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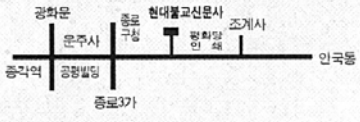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